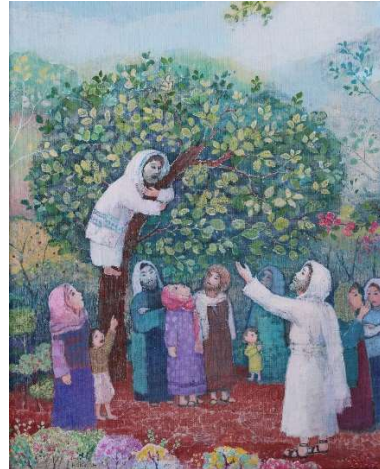


2024. 6.22(토) - 7.13(토) 분당채플 로비갤러리 & 프랑슈아카페

김현옥 화가 **복있는 사람 (Gesegnete)**



작품 1) **로뎀나무 아래에서** (unter dem Wacholder)
50x60 cm, acrylic on canvas, 2024



작품 2) **만남** (Begegnung)
50x40 cm, acrylic on canvas, 2024

「복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믿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지고, 어린 아이와 같을 때, 진정 하늘의 복으로 채워진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힘든 순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삶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은 성경에서 만나진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삶은 소풍처럼, 놀이처럼 기쁘고 설렌다. 그림 그리기는 신앙의 고백이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창조주이신 주님 안에서 더 크고 깊은 세계를 체험하길 소망해 본다.



중앙대 서양화학과 (중퇴)
홍익대 회화과 학사
베를린 공대 예술학과 (중퇴)
개인전 11 회 국내 해외 단체전 및 아트페어 50 회
연락처 010 3514 2247 @hyunokkim.art